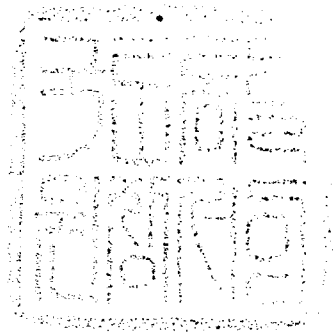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전산필
1974. 6.



研究責任者 : 심 현

目 次

1 . 研究目的	3
2 . 北韓의 对美 平和協定 提議의 不当性	4
가 . 美国의 北韓集團과 平和協定締結 不当性	4
나 . 韓半島 問題解決에 韓國 除外不当性	6
다 . 北韓의 平和協定 提議 非良心性	8
라 . 北韓의 对美 平和協定 提議 斯臆性	11
마 . 北韓의 提議는 韓半島 平和威脅要因 加重	13
3 . 北韓의 对美 平和協定 提議 底意	16
가 . 駐韓美軍을 侵略的 外勢로 烙印	18
나 . 武力赤化統一 野慾 은폐	19
다 . 駐韓美軍 撤収 計略	20
라 . 國際的 威信墜落 만회 計略	23
마 . U N戰略의 事前布石	25
바 . 休戰協定 廢棄	26
사 . 南北對話 破棄	28
아 . 韓·美 離間 및 北韓政權 承認	30
자 . 美国의 对韓援助를 中斷시키고 韓國을 孤立化 底意	32
4 . 平和協定 提議에 대한 國內外 反應	34
가 . 韓美政府側의 反應	34

4. 国内言論의 反應	35
다. 海外 言論의 反應	39
5. 結 語	43

1. 研究 目的

北韓은 최근에 와서 우리의 6.23 宣言에 對抗하기 위하여 對外 宣傳에 注力하고 있다.

對外活動에 있어서 方法은 여러가지 形態로 驅使되고 있지만 그들은 實現性이 없는 偽裝的인 政策을 내세워 韓國의 對外的 「이미지」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1974年 3月 23日 北傀는 소위 美國에 대하여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하였다.

이것은 駐韓 美軍의 撤收를 前提하고 나선 것이며, 이는 韓半島의 平和는 美國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規定하므로써 美國의 反平和的 立場으로 겨냥하면서,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相對的으로 추락시키자는데 있다.

이런 點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이 對外宣傳에 있어서 機先을 制壓하려는 속셈이고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한 積極的인 對抗 措置를 取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論文은 北傀의 對外宣傳의 方案으로 提示된 그들의 對美 平和協定에 대하여 그 虛構性을 暴露하고 아울러 이 提議에 대하여 對外的으로 어떻게 反應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分析하므로써 對內 弘報는 勿論 對外弘報의 基本資料를 삼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本論文의 內容을 北傀의 對美平和協定の 內容과 協定 提議의 不當性을 指摘하고, 이 提議의 底意와 國內外的 反應을 分析한다.

2.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의 不當性

共産勢力이 北韓을 強占하여 韓半島 赤化를 위한 兵站基地로 굳히기 위해 故意的으로 祖國을 分斷한 以來 오늘날까지, 입으로는 平和統一을 口頭禪처럼 뇌까리면서 實質적으로는 갖은 手段과 方法으로 그를 妨害해 왔을 뿐만 아니라, 直接 間接으로 對南挑發을 姿行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하고 同族相殘의 民族的 悲劇까지 挑發했다.

그 後에도 公公然히 休戰協定이나 7.4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違反하고 있는 北韓 共産集團이 이제 영똥하기도 美國에 對해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한 것은 實로 可笑롭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들의 이와 같은 提議는 어느 點으로 보나 千不當 萬不當한 것으로서 徹頭徹尾 計略的인 것이며, 그 裏面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검은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서 그것이 不當한 것인가 살펴 보자.

가. 美國은 北韓 共産集團과 平和協定締結 不當性

첫째, 美國은 北韓 共産集團과 平和協定을 맺을 아무런 理由도 없음에도 不拘하고 北韓 共産集團이 그를 提議했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美國은 反共國家로서 北韓 共産集團과는 理念對立의 立場에 있고,

世界 到處에서 恣行되어 왔던 共產勢力의 侵略을 阻止하는데 中樞的 役割을 다해 오고 있다. 그리고 6.25 共產侵略으로부터 우리 韓國의 安全과 平和를 守護하기 위해 「유엔」 平和軍의 一員으로 우리를 돕는 過程에서 北韓 共產軍과 對戰하였고, 現在까지 一部 兵力을 韓國에 駐屯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이 北韓 共產軍과 對戰하고 韓國에 兵力을 駐屯시키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엔」 平和軍의 一員으로서 「유엔」의 決議와 世界平和 守護를 위한 「유엔」의 責務와 權能을 遂行하는 것이지, 美國 單獨의 立場에서 取한 行動은 아니다.

따라서 美國은 決코 北韓 共產集團의 交戰 當事國은 아니다. 休戰協定の 署名 當事者도 美軍이 아닌 「유엔」軍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까닭이다.

이와 같이 美國이 北韓 共產集團과는 交戰國 關係에 있지도 않는 것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交戰國 關係에 있던 國家끼리 和解하여 平和關係를 恢復하는데 必要한 平和協定을 맺자는 것은, 美軍의 韓國戰 參戰과 韓國 駐屯의 性格을 歪曲하여 어디까지나 美國을 交戰國으로 規定함으로써 此後 某種의 政治的 攻勢를 企圖하려는 計略적인 布石임이 分명한 것이다.

北韓과 交戰國關係에 있지도 않는 美國이 都大體 그들과 平和協定을 맺어야 할 理由와 必要性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럴 理由는 全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名分도 까닭도 없이 北韓 共產集團이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다는 것은 그 動

機부터가 어떠한 伏線이 있는 不純한 것으로서 不當한 것이라 아
니 할수 없는 것이다.

나. 韓半島問題解決에 韓國除外 不當性

우리는 앞에서 北韓 共產集團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는 처음부
터 名分이 서지 않는 것으로서 不當하다는 點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들이 提議한 所謂 對美 平和協定 內容을 보면, 4個項 모두가
우리 韓半島에 關係된 것이며, 美國과 北韓 共產集團과의 平和的
關係를 內容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첫째 項目인 「雙方은 서로 相
對方을 侵犯하지 않을 것을 誓約하고, 直接的 武力衝突의 모든 危
險성을 除去할 것」이라는 相互不可侵協定の 內容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첫째 項目 赤是 따지고 보면 그 前文에서 「北韓과
美合衆國은 韓國停戰協定の 締約 雙方이며, 實際上的 當事者들이다.
……中略……우리는 南北 사이에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우리 나라에서 公告한 平和를 이룩하며,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의
前提를 마련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平和協定에는 應當히 다음과 같
은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韓半島 안에서 相互不可侵을 意味하는 것이 分명한
以上, 그것이 全적으로 美國과 北韓만의 關係를 다짐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美國을 우리 韓國側을 代表하는 存在로 前提한 南北
相互不可侵을 約束하자는 것이니, 結局은 그들이 提議한 對美 平和
協定이란 全部가 우리 韓半島에 관한 것이지, 決코 美國과 北韓만

의 關係 改善을 目的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明白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韓半島 問題 解決에 있어 그 主体的 當事者의 一方인 우리 韓國을 北韓이 故意的으로、無視하고, 第3者인 美國과 어떤 協議를 試圖하려는 意思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嚴然히 7.4 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인 「自主的 統一原則」과 지난해의 「유엔」 合意聲明인 「韓半島 問題의 南北韓 相互間의 自主的 解決方向 支持」에 正面으로 違背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堂堂한 主体者요 當事者인 우리 韓國을 韓半島 問題解決에서 排除하기 위한 奸惡한 計略에 不過한 것으로써, 그것은 到底히 容納될 수 없는 不當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北韓 共產集團은 그러한 그들의 奸巧한 計略을 은폐하고, 對美 平和協定 提議의 妥當性을 貳발침하기 위해 그 提議의 序頭에서 「現條件에서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確實히 擔保할만한 實權을 가진 當事者들끼리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應當하다」고 脅迫으로써 暗暗裡에 우리 韓國이 마치 美國의 支配下에 있는 主權없는 國家와 같은 存在로 規定하는 오만불손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主權과 民族的 尊嚴 및 主体性을 故意로 짓밟으려는 惡意的인 것으로서 民族的 憤怒를 禁할 수 없는 千萬不當한 것이다.

그들이 言必稱 부르짖는 「自主統一」이란 이런 것이며, 7.4 共同聲明에서 合意한 「自主的 統一原則」이란 當事者인 우리 韓國을 제쳐 놓고 엉뚱한 第3國을 介入시키는 것을 말하였던 말인가?

이러한 北韓의 表裏不同한 態度는 自家撞着도 이만 저만이 아니며 到底히 容納될 수 없는 民族的 反逆인 것이다.

우리 韓半島 問題를 解決하는 데 있어서 그 主体者인 우리 韓國을 제쳐 놓고 어떻게 論議할 수 있으며, 解決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 發想부터가 極히 不合理하고 不當하며 不純한 것으로서 反民族的 罪惡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 韓國動亂을 終息시키기 위한 休戰協定の 署名 当事者가 「유엔」軍과 北韓 共產軍 및 中共軍으로 되어 있는 것은 事實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戰鬪行爲 中斷을 위한 協定일 뿐, 그 이상의 어떠한 政治的 協定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北韓이 提議한 對美 平和協定은 그 性格으로 보아 韓半島 問題 解決을 위한 政治的 協定으로서, 이러한 政治的 協定은 宜當 韓半島의 主人인 우리를 相對로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 共產集團은 우리에게 대해 非現實的이며 計略的인 平和協定 締結을 끊임 없이 提議했다가 우리가 그를 拒否하자, 엉뚱하게도 우리를 제쳐 놓고 第3 國인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提議하는 妄動을 부리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어떤 面으로 보든, 또한 아무리 善意로 解釋하려 하여도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妄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北韓의 平和協定 提議非良心性

個人間이나 國家間이나 어떤 約定을 締結하는 것은 그것을 誠

실히 지킨다는 信賴가 前提되어 있는 것이다. 萬一 約定 当事者의 一方이 約束을 지키지 않는 背信行爲를 일삼는다면, 그가 아무리 콩으로 맵주를 쏠때도 다시는 그와 約束을 할 者는 없을 것이다.

한번쯤은 속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事事件件 妥當치 않는 理由를 들어 約束을 지키지 않고 背信行爲를 恣行하는 相手方이 또 다시 어떤 約束을 提議해 온다면 우리는 그의 良識과 良心을 疑心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背信者는 웬만치 鉄面皮한 者가 아니고서는 또 다시 뻔뻔스럽게 무슨 約束을 하자고 提議할 수 없는 것이 人間社会의 하나의 良識이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普遍的인 人間의 良識과 良心을 저버리고 背信行爲를 茶飯事로 하면서 執拗하게 새로운 約束을 提議하여 무엇인가 엉뚱한 것을 노리려는 非良心的인 人間集團이 있다. 그것이 바로 北韓 共產集團이다.

그들은 祖国 分斷 以後 출판 左右合作이니, 南北協商이니 하여 表面上으로는 그럴듯한 提議를 하면서 그들의 戰爭準備를 은폐하고 있다. 가 奇襲적으로 우리 韓國을 侵略함으로써 가장 큰 背信行爲를 저질렀으며, 그 후 休戰協定에 署名해 놓고도 얼마 가지 않아 公公然히 休戰協定을 違反하여 戰力 強化를 위한 軍備導入을 促進하고 對南挑發을 激化하는 背信行爲를 恣行해 왔다.

또한 그들은 7.4 共同聲明에 合意함으로써 南北韓이 民族的 良心에 立脚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해 誠實히 努力하고 南北對話를

誠意있게 進行시킬 것을 5千万 民族 앞에 굳게 誓約했음에도 不拘하고, 不過 몇달이 못되어 또다시 對南誹謗 非難과 武力挑發을 일삼다가 一方的으로 南北對話를 中斷시키는 背信行爲를 敢行했다.

이러한 背信者的 所行을 茶飯事로 해 온 그들은 이제 公公然히 南北對話의 無用論을 내세우면서 (勞動新聞 社說에서 主張했다고 3月27日 東京에서 UPI 通信이 報道) 우리 韓國을 제쳐 놓고 美國에 대해 韓半島 問題 解決을 위해 平和協定을 맺자고 提議함으로써 또 다른 背信行爲를 恣行하기 위한 布石을 던졌다.

都大体 北韓이 무슨 良心이 있어 이런 뻔뻔스러운 提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北韓이 우리 韓半島 問題解決을 위해서 우리 韓國을 除外하고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맺자고 하는 것 自体가 一種의 背信行爲이며 語不成說의 妄動이지만, 設令 百步를 讓步하여 그런 提議를 할 수 있는 妥当性이 있다고 假定한다 하더라도, 祖國 分斷 以後 오늘 날까지 背信行爲로만 一貫해 온 北韓 共產集團이 어떻게 敢히 또 다른 協定 締結을 提議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우리는 그들에게 民族的 良心의 恢復과 모든 協定이나 約束의 履行을 促求하면서 어떠한 必要的 새로운 協定 締結을 提議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그들만은, 조그만한 良識과 良心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시는 아무런 協定의 提議도 하지 못할 것이다.

良心 있는 人間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提議를 뻔뻔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것 自体가 決코 순수한 것일 理가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不當한 것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 斯謫性

이번에 北韓이 美國에 對해 提議한 所謂 對美 平和協定案은 表現만 다를 뿐, 相互不可侵協定の 內容이다. 그 提案 內容의 첫째 項目에 「雙方은 서로 相對方을 侵犯하지 않을 것을 誓約하고 直接的 武力衝突의 모든 危險性を 除外할 것」이라는 內容이 그를 立証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月 18日 朴大統領이 北韓 共產集團에 對해 提議한 바 있는 相互不可侵協定の 提議內容과 別般 다를 바 없는 內容이다.

다만 다를 것이 있다면, 北韓의 提議에서는 駐韓美軍의 撤収와 休戰協定の 破棄를 前提로하고, 그 對象이 南北韓이 아닌 美國과 北韓共產集團이라는 差異밖에는 없다.

똑같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南北韓關係의 改善을 위한 同一한 協定內容을 우리 韓國이 提議했을 때는 反對하던 北韓共產集團이, 이제 와서는 비록 對象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美國에 對해 提議했다는 것은 自家撞着도 이만 저만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結局 우리의 不可侵協定 提議가 極히 妥當하고 必要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間接적으로 是認한 것이다. 그 必要性和 妥當성을 認定하였다면 그들은 좀 더 率直하고 虛心坦懷하게 우리의 提議를 받아들일 일이지, 비굴하게도 우리가 提議할 때는 反對

를 하면서, 오히려 그를 그들의 創意的인 提議인 양 假裝하여 迂廻的인 方向으로 엉뚱한 第3者에게 提議하는 自己矛盾을 드러낸다는 것은 極히 不純하며 不當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이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미운 사람이 주는 밥이니 먹을 수는 없고, 엉뚱한 第3者에게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조르는, 못나고 심술 궂은 어린이의 二律背反的 妄動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理致에도 닿지 않는 對美平和協定 提議를 撤回하고, 民族的 良心에 立脚하여 率直하고 眞摯하게 우리의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 提議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宣伝을 위한 새로운 提議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休戰協定과 7.4共同聲明 등 平和와 平和統一을 위한 既定協定과 約束을 誠實히 지키는 것은 勿論, 모처럼 열린 南北對話의 門을 보다 幅 넓게 열어 平和統一을 위한 共同努力을 傾注해 나가도록 온갖 誠意를 다하는 것이 先決問題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날로 激化시키고 있는 對南挑発을 即時 中止하고, 西海에서의 우리 漁船에 대한 武力挑発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謝罪하며 拉北漁夫와 漁船을 하루 速히 送還함으로써 앞으로 推進시켜 나갈 南北關係의 發展을 위한 基盤的인 与件과 姿勢를 갖추어야 한다.

現 時点에서 지켜야 할 約束이나, 平和를 위한 眞實한 努力을

外面하고 있으면서, 어찌 그들이 또 다시 어떤 約束을 하자고 提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鉄面皮한 일로서, 또 다른 斯臆을 위한 偽計에 不遇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北韓 共產集團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가 不當한 것이라고 痛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 北韓의 提議는 韓半島 平和威脅要因 加重

北韓 共產集團이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提議한 窮極的인 目的은 그들의 提議內容의 세째번과 네째번 項目인 『南韓에 있는 外國軍隊는 「유엔」軍의 名稱을 除去고, 가장 빠른 期間內에 一切의 武器를 가지고 撤去하도록 할 것. 南韓에서 모든 外國軍이 撤去한 뒤 韓半島는 그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內容을 貫徹시키려는 데 있음은 너무나 分明하다.

즉, 그들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는 駐韓 「유엔」軍의 主力인 駐韓 美軍을 撤収시키고, 어떤 名目으로든지 다시는 「유엔」軍이나 美軍이 韓國에 駐屯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그 主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韓國에 대해 提議했던 平和協定에서 노리고 있는 「駐韓美軍의 撤収」要求와 一脈相通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를 拒否하자,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기어히 그를 貫徹시키려는 속셈에서 이번에는 美國에 대해 그를 提議한 것에 不遇하다.

그렇다면 왜 執拗하게 駐韓 「유엔」軍의 主力인 駐韓美軍의 撤

収를 貫徹시키려고 血眼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防衛力을 弱화시켜 勢力均衡을 깨뜨림으로써 武力赤化統一의 与件을 造成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對立되는 勢力들이 서로 對立·對決關係를 持續하면서 不安定하나마 平和로운 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相互間에 勢力均衡이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의 勢力이란 主로 軍事力이 核心이 된다.

現在 우리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도 이러한 勢力均衡의 原理는 그대로 適用된다. 즉, 現在 南北韓의 勢力均衡은 『韓國軍+駐韓「유엔」軍=北韓 共產軍』의 圖式으로 表示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駐韓「유엔」軍이 撤収한다면 「韓國軍<北韓 共產軍」의 狀態로 勢力均衡에 異狀이 招來될 것은 明若觀火하며, 이와 같이 勢力均衡이 깨어지면 強한 勢力圈에서 어떠한 힘의 作用이 弱한 勢力圈으로 作用되어 戰爭挑發의 危險성이 增大되는 것은 必至의 事實이다.

그렇지 않아도 現在의 勢力均衡 狀態下에서도 끊임 없이 侵略的인 挑發을 일삼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이고 보면, 적어도 現時點에서는 우리의 防衛力 弱화를 意味하는 駐韓「유엔」軍의 撤収는 北韓 共產集團의 對南 武力再侵의 与件을 造成하는 것이 되므로 韓半島의 平和는 一大 威脅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北韓 共產集團이 平和를 假裝하고 對美 平和協定을 提議

한 것은 平和의 美名下에 武力再侵을 할 수 있는 与件 造成을
劃策하려는 羊頭狗肉格인 偽裝戰術로서, 그것은 韓半島의 平和威脅要
因을 더욱 加重시키는 不當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3.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 底意

우리는 앞에서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가 여러 가지 點에서 不當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北韓 共產集團은 그들의 主張이, 不當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것이 萬一 妥當한 것이고 몇몇한 것이라면, 그들이 그것을 提議하지 않고 오늘까지 미루어 왔을리가 없다.

그들이 그것을 오늘날까지 提議하지 못했던 것은 어느 모로 보나 名分도 서지 않고 理致에도 닿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어찌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그것을 提議했단 말인가? 그 背景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國際情勢의 和解趨勢에 便乘하여, 「平和」를 앞세우기만 하면 名分이나 論理的 矛盾 따위는 그다지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한 듯하다.

冷戰體制에서 平和共存體制로 變遷하고 있는 오늘날의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冷戰的 要素를 除去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바람직하다는 方向으로 國際的 認識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名分이야 서든 안서든 對立關係 乃至 對決關係에 있는 美國과 和解한다는 것은 國際情勢 推移에 合당한 것이므로 國際적으로 呼應 받을 수 있고, 따라서 對外宣傳에도 有利할 것이라고 그들은 判斷했을는지 모른다.

둘째,北韓内部의 權力構造와 政策方向의 變化에 따라 取해진 措置였을 可能性이 많다.

7.4 共同聲明에 合意하고 南北對話가 活潑하게 進行되는 동안 北韓에서는 比較的 穩健派에 屬하는 南北對話 推進派가 得勢하여 그들의 政策方向도 역시 그런대로 比較的 穩健한 方向을 指向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一方的으로 對話 中斷을 宣言한 以來, 그들의 政策方向은 漸次 強硬路線을 指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對南戰略 역시 硬化되어 왔다.

이것은 南北對話派의 後退와 軍部勢力을 主軸으로 하는 強硬派가 得勢하여 政策方向에 있어서도 強硬策을 指向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事實 外信에 의해 斷片的으로 伝해지는 北韓의 實態를 綜合分析할 때 北韓 内部의 權力構造와 政策方向에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事實인 듯하다.

萬一 그것이 事實이라면 強硬派의 政策路線이 現在 北韓을 支配하고 있을 것이다. 強硬路線이란 大概의 경우 名分이니 論理니 하는 理論은 度外視하고, 現實과 實利만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에 北韓이 不當한 對美 平和協定을 提議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強硬派의 實利를 노리는 強硬政策에 의한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세계는, 우리 韓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提議하고 그를 受諾할 것을 끊임없이 促求하였으나 韓國이 拒否하고 있다는 事實이 對美 平和協定을 提議할 수 있는 充分한 理由가 된다고 그들은 自己 合理化

的 口實을 앞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케번스러운 口實일 뿐 理致에 닿지 않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如何間 俗談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구차스럽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핑계를 생각하고서 이 不當한 提議를 했을 것임에 틀
림 없다.

그러면 都大体 무슨 속셈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提議를 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提議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推測컨대 그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點을 노리고 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가) 駐韓美軍을 侵略的 外勢로 烙印

北韓은 이제까지 駐韓美軍을 侵略軍이라고 非難하면서 宣傳攻勢
를 펴 왔지만 아무도 駐韓美軍을 侵略軍으로 認定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駐韓美軍을 侵略軍으로 烙印 찍기 위해서는 어
떠한 迂廻的인 方法으로든지 美國 스스로가 그를 是認하도록 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번에 그들이 對美 平和協定을 提議한 속셈의 하나는, 萬一 美
國이 그를 受諾할 경우, 바로 美國 스스로가 侵略軍임을 是認한
것이라고 逆宣傳하려는 데 있음이 分明하다.

北韓 共產集團은 同 平和協定 提議內容에서 美國을 가르켜 「停
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것을 確實히 담보할 만한 實權을
가진 當事者」라고 前提하고, 「北韓 共產集團과 美合衆國은 韓國停

戰協定の 締結 双方이며 實際上的 当事者」라고 規定함으로써 마치 美國을 韓國動亂의 實質的인 当事國처럼 내세우고 있다.

韓國休戰協定の 当事者の 一方이 「유엔」軍임은 休戰協定에 明記되어 있으며, 決코 美軍이 아님은 公知의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마치 美國만이 6.25 動亂의 交戰 当事國인 양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祖國 分斷과 6.25 動亂의 責任이 그들 共產勢力側에 있으면서도 美國의 侵略에 起因된 것이라고 責任轉嫁해 오고 있는 그들의 一貫된 생떼를 뒷받침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은 美國을 侵略的 外勢로 몰아세워,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韓國의 平和統一이 이룩되지 않는 것은 美國의 侵略政策과 駐韓美軍 때문이라는 생트집을 부려 美國과 우리 韓國에 대해 새로운 政治宣傳攻勢를 加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武力赤化統一 野慾은폐

北韓 共產集團이 赤化統一의 野慾을 가자고 오늘날까지 直接 間接的인 對南挑釁을 일삼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이러한 北韓의 野慾이 表面에 드러나면 北韓이 國內外的으로 輿論의 壓力을 받아 그들의 對外活動에 決定的인 支障을 招來하게 될 것은 儼한 일이다.

따라서 北韓으로서는 온갖 手段 方法을 다하여 對外的으로 그들의 好戰性을 은폐하고 가장 平和 指向的이라는 印象을 扶植하면서

도, 實質的으로는 赤化統一의 目標을 達成하는데 有利하게 되는 計策을 쓰려고 血眼이 되어 있다. 이것이 곧 그들의 偽裝平和攻勢이다.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는 北韓의 속셈을 잘 모르는 第3者가 보기에는 北韓이 정말 平和를 바라고 있고,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려는데 熱意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 것이다.

北韓이 노리는 것의 하나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國際的으로 北韓에 대해 이와 같은 好意的인 認識을 가지는 國家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北韓의 偽裝平和攻勢는 더욱 効力을 發生하여 韓國과 美國에 대한 政治宣傳攻勢를 펴는 데 有利해지며, 그것은 다시 韓國의 安保를 위한 韓美間의 紐帶를 弱화시킴으로써 武力赤化統一 戰略을 遂行하는데 有利한 地盤이 造成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武力赤化統一野慾을 은폐하는 効果를 거두면서, 또 한편으로는 武力赤化統一을 達成하는 데 有利한 條件을 이룩할 수 있는 一石二鳥의 効果를 거둘 수 있는 計策의 하나가 바로 이 對美 平和協定の 提議라고 그들은 計算하고 있는 것이다.

다. 駐韓美軍 撤収計略

北韓 共產集團이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가장 主된 目的은 그들이 執拗하게 主張해 오고 있는 駐韓美軍의 撤収

와 美國의 對韓 防衛協力 中止의 要求를 貫徹하려는 데 있다.

北韓은 對美 平和協定 提議內容에서 4個項目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核心的 骨子は 세째 項目인 『駐韓 外國軍은 「유엔」軍의 名稱을 除去하고, 가장 빠른 期間內에 一切의 武器를 가지고 모두 撤去하도록 할 것』과, 네째 項目인 「韓國에서 모든 外國軍이 撤收한 뒤 韓半島는 그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도 되지 않을 것」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結局 駐韓 「유엔」軍인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고, 다시 나아가 韓美防衛條約 등에까지도 制約을 加하여 韓半島에서 또 다시 戰爭이 일어나더라도 다시는 「유엔」軍이나 友邦國의 支援軍이 우리 韓國에 駐屯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속셈인 것이다.

北韓 共產集團은 그들의 赤化統一戰略을 遂行하는 데 가장 큰 障礙가 駐韓美軍과 美國의 韓國 安保의 協力에 있다고 보고 있다. 韓國에서 美軍이 撤收하고, 此後 韓半島에서 어떠한 事態가 벌어지더라도 다시는 美國의 直接的인 軍事支援이나 介入만 없다면은 武力으로 南韓을 赤化하는 것은 問題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確信하고 있는 것이다.

6.25 當時에도 그들은 그러한 計算 밑에 南韓에 駐屯해 있던 美軍을 撤收시킬 口實을 만들기 위해 北韓에 進駐했던 소聯軍을 一方的으로 撤收케 함으로써 結局 駐韓美軍의 撤收가 實現되자 不過 1年만에 南侵을 敢行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때의 南侵이 成功하지 못한 것이 美軍을 비롯한 여

러 民主友邦軍으로 編成된 「유엔」軍의 對韓 軍事支援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主軸을 이루었던 美軍과 美國의 對韓支援에 대해 徹天의 怨恨을 품게 되었다. 그들이 美國을 가르켜 말끝마다 「원수의 美帝國主義」云云하는 것도 바로 그 까닭이며, 오늘날 美國으로 하여금 韓國에 대해 協力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도 바로 그 까닭이다.

事實 北韓 共產集團은 駐韓「유엔」軍이 韓半島 平和 維持를 위해 北韓 共產集團의 武力挑發을 阻止하는 防波堤 役割을 다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유엔」軍은 「유엔」의 決議에 의해 合法的으로 韓國에 駐屯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軍의 撤収를 主張한다는 것은 곧 自己들의 南侵野慾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므로 그들은 駐韓「유엔」軍대신 그 主軸인 駐韓美軍의 撤収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駐韓「유엔」軍인 各 外國軍이 「유엔」軍의 名稱을 使用하지 말아야 한다고 主張하는 속셈도 바로 駐韓「유엔」軍의 名分 있는 韓國駐屯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一次的으로 그들로부터 韓國屯駐의 名分을 剝奪해서 撤収토록 하자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駐韓「유엔」軍 중에서도 一部는 이미 撤収하였고, 美軍이 그 主力이 되어 있기 때문에 駐韓美軍만 撤収시키면 駐韓「유엔」軍의 撤収 效果를 充分히 거둘 수 있다고 보고, 駐韓美軍의 撤収에 宣傳攻勢의 焦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駐韓「유엔」軍의 撤収를 貫徹시키려는 것은 結局 韓半島의 勢力均衡을 무너뜨려 6.25 때와 같이 武力南侵을 敢行할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번에 北韓이 對美 平和協定을 提議한 가장 큰 속셈은 바로 駐韓「유엔」軍의 主力인 駐韓美軍의 撤収를 實現시키려는 그들의 一貫된 計略의 하나인 것이다.

라. 國際的 威信墜落 만회 計略

北韓 共產集團이 가소롭게도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締結하고자 提議한 것은 이러한 偽裝平和攻勢를 통해서 그 동안 失墜된 그들의 國際的 威信을 만회해 보려는 속셈에서이다.

北韓은 不法적인 6.25南侵의 罪過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엔」으로 부터 侵略者라는 烙印이 찍힌 이래 失墜된 國際的 威信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다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休戰協定이 成立된 뒤에도 계속 不法적인 挑戰과 非人道的인 蠻行을 되풀이 하여 好戰的 侵略성과 武力赤化 統一의 野慾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國際的 威信은 더욱 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가 南北關係의 改善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 基盤의 構築을 위해 南北對話를 提議하자, 그들은 이를 利用하여 國際的 孤兒의 狀態에서 벗어나 우리 大韓民國과 대등한 國際的 地位를 確保해 보려는 속셈으로 이에 呼應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南北對話를 對內的으로는 對南赤化의 方便으로 利用하는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그들이 平和 愛護的인 것처럼 과시하는 偽裝 平和攻勢의 한 手段으로 삼아 國際舞台에 進出하는 발판으로 利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南北對話를 利用하여 南韓社會를 混亂시켜 對南赤化 革命을 이루어 보자는 그들의 企圖가 挫折되자, 全世界의 輿望을 背反하고 이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가장 賢明한 方策인 우리의 南北間 相互不可侵協定 締結 提議를 拒否하고, 7.4 南北共同聲明에 違背되는 對南誹謗과 挑發을 激化시켜 마침내 지난 2月15日 西海 公海上에서 平和的으로 漁撈중이던 우리 漁船에 대하여 砲擊을 加하여 擊沈, 不法持立致하는 非人道的인 蠻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다시 好戰的 侵略性을 露呈하자 한동안 누구려졌던 世界輿論은 그들에게 또 다시 차거운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의 國際的 威信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를 만회하기 위한 한 計策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對美 平和協定の 提議인 것이다.

그들은 平和協定の 提議를 통하여 마치 그들이 平和 愛護的인 것처럼, 國際輿論을 誤導하고, 나아가 強大國인 美國과 對坐하리 만 큼 그들의 國際的 地位가 向上되었다고 과시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北韓이 平和協定の 內容의 하나로 駐韓外國軍의 「유엔」軍 名稱 不使用을 提起하고 있는 것도 「유엔」軍의 韓國駐屯의 名分을 없앴으로써 자기들을 侵略者로 烙印 찍은 「유엔」의 決議를 無効化 시키는 效果를 거두어, 그들은 그들에게 씌워진 侵略者의 멍에를 벗고 墜落된 國際的 威信을 회복하자는 데 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마. 「유엔」戰略의 事前布石

北韓 共產集團이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또 다른 속셈은 韓半島 問題를 美國과의 關係로 連結시킴으로써, 南北間의 對話를 통한 自主的 解決로 委任된 韓國問題를 다시 今秋의 「유엔」 總회에 上程시키려고 劃策하는 한편, 對 「유엔」 外交에서 보다 有利한 高地를 차지해 보겠다는 데 있는 것이다.

昨年 11月 第 28 次 「유엔」 總회는 韓國問題에 대한 合意聲明을 통해, 「유엔」은 南北韓이 7.4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促進하기 위해 對話를 繼續할 것과 南北韓間에 多方面의 交流와 協調가 이루어지기를 全적으로 希望한다』고 밝힘으로써 韓國問題 討議의 實質的인 終結을 宣言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合意聲明은 우리가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에 立脚하여 平和·善隣을 對外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自主的 平和統一을 추구하는 동시에, 「유엔」에서 韓國問題를 둘러싸고 非生産的인 激論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南北間의 自主的인 解決에 一任해야 한다는 우리의 主張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이 우리가 追求해 온 外交方針대로 韓國問題의 自主的 解決方向을 支持하자 北韓은 그들의 主張이 貫徹되지 않은데 대하여 무척 當황했던 것이다.

이에 北韓은 今年 가을에 있을 第29次 「유엔」 總會에도 기필코 韓國問題를 再上程시키려고 劃策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함으로써 韓半島 問題는 南北韓間의 對話로써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印象을 全世界에 줌으로써, 지난 第28次 「유엔」 總會의 合意聲明이 아무런 實効가 없다는 方向으로 世界輿論을 誘導하여 韓國問題를 다시 「유엔」 總會에 上程시키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해 「유엔」 總會에서 貫徹시키지 못했던 그들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을 다시 提起하여 이를 받아 들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노리는 南韓의 「힘의 空白化」를 이루어 赤化統一의 決定的 條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對美 平和協定 締結提議는 世界輿論에 주는 影響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韓國問題의 「유엔」 總會 上程과 駐韓「유엔」軍司令部 解體의 決議를 위한 國際輿論 造成을 겨냥한 事前 布石인 것이다.

바. 休戰協定 廢棄

北韓 共產集團은 對美 平和協定 締結 提議의 서두에서 「現 條件에서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를 提議한다고

前提함으로써, 그들의 끊임 없는挑戰에도 不拘하고 韓半島 平和維持의 基礎가 되어 있는 休戰協定을 廢棄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그들이 提議한 平和協定의 內容이 相互不可侵・武力 增強과 軍備 競争의 中止・武器 및 軍需物資의 搬入 中止 등 現在 休戰協定의 內容과 大同小異하다는 사실은 軍事的인 休戰協定을 政治的인 平和協定으로 代替한다는 口實 아래 休戰協定을 破棄함으로써 韓半島의 平和基盤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인 것이다.

休戰後 지난 20餘年 동안 北韓은 17,000餘回나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武力 增強과 武力挑發을 恣行해 왔다. 그들은 소련과 中共으로부터 最新武器를 導入하여 武力을 增強하고, 北方 非武裝地帶에 要塞를 구축하여 前線을 사실상 2km나 南進시켰다. 그리고 소위 4大軍事路綫을 추진하여 全國土의 要塞化・全人民의 武裝化・全軍의 幹部化・裝準의 現代化를 이룩하고 戰爭準備 完了를 豪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最近에 와서는 休戰協定上 엄연히 우리의 領海로 規定되어 있는 西海 5島의 水域에 대하여 당치도 않게 領有權을 主張하고 나섰으며, 지난 2月15日에는 西海 公海上에서 漁撈作業 중이던 우리 漁船에 대해 砲擊을 加함으로써 이를 擊沈・拉致하는 蠻行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北韓의 戰爭準備 強化와 繼續的인 挑發 속에서도 韓半島의 平和가 維持되고 있는 것은, 첫째로 韓半島의 平和를 위한

우리의 努力과 忍耐 및 自重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유엔」이 当事者의 하나로 되어 있는 休戰協定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現行 休戰協定은 韓半島의 平和 維持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安全弁이며, 반대로 再侵의 機會만을 노리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에게는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成就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하루 빨리 이 休戰協定을 廢棄해야만 그들이 노리는 赤化統一을 成就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機會 있을 때마다 休戰協定 破棄를 위해 갖은 術策을 다해 왔던 것이다. 지난 年初에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가장 現實的인 方策으로서 우리가 休戰協定 尊重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南北間 不可侵協定을 提議하자 이를 拒否한 것도 그러한 속셈에서였던 것이다.

이번에 그들이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것도 現行 休戰協定을 廢棄함으로써, 그들의 基本路線인 赤化統一戰略을 促進시켜 보자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사. 南北對話 破棄

北韓 共產集團이 「休戰協定 締結 雙方이며 實際上的 当事者」라는 당치도 않은 理由를 내세워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을 締結하고자 提議한 것은 韓半島 問題 解決에 있어 韓國을 意識的으로 除外함으로써 南北對話를 實質的으로 破棄하려는 속셈이다.

北韓이 우리가 主導한 南北對話에 응해 온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에서였다.

첫째로, 70年代에 들어서서 全世界는 和解·共存의 趨勢를 띠고 있는데, 南北對話를 反對한다는 것은 이 趨勢에 正面으로 逆行하는 것으로 스스로 國際的인 孤兒가 되는 거나 다름 없다. 그렇지 않아도 共產圈에서도 가장 好戰的이며 閉鎖的인 獨裁集團이라는 烙印이 찍혀 있는 北韓인지라, 萬一 그들이 平和 指向的인 國際潮流와 大勢를 外面하고 우리가 提議한 南北對話에 應하지 않을 경우에는, 世界的인 輿論의 壓力을 모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南北對話를 잘만 逆利用한다면 南韓에 대한 宣傳攻勢나 浸透工作을 매우 効果的으로 遂行할 수도 있다는 計算 밑에서 이것을 韓半島 赤化革命의 한 手段으로 利用하겠다는 計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計略이 當初의 計算대로 먹혀 들어 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우리 側에만 有利하게 展開되어 가자 그들은 차츰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빠뜨리면서 7.4 南北共同聲明을 正面으로 유린하는 蠻行을 자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南北對話 不過 2年만에 好戰的인 根性和 侵略的인 本性을 다시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해 8月 28日에는 南北對話의 中斷을 一方的으로 宣稱함으로써 統一을 期待하는 5千萬 民族의 念願에 찬물을 끼얹고, 對話를 통한 南北關係의 改善을 積極 支持하는 世界輿論을 背信하고 말았다.

지난해 가을 第 28 次 「유엔」 総会에서 滿場一致로 採択된 『「유엔」은 南北韓이 7.4 共同声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促進하기 위해 對話를 繼續할 것과, 南北韓間에 多方面의 交流와 協調가 이뤄지기를 全적으로 希望한다』는 合意声明의 内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韓半島의 問題에 관한 限, 南北韓間의 直接對話에 의한 解決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世界 輿論인 것이다.

이러한 輿論과 大勢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昨今에 이르러 그들의 侵略路線을 더욱 強化하여 西海上에서의 軍事挑發까지도 不辭하더니, 이번에는 한수를 더 떠서 韓國을 제쳐 놓고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함으로써 「유엔」의 合意声明에 正面으로 挑戰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韓半島 問題를 解決하는 데 南北韓의 對話를 통하지 않고 美國과의 直接協商을 꿈꾸는 妄動을 부리는 것은 分斷 4 半世紀만에 겨우 對話의 門이 열리기 시작한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파괴하여 武力赤化統一을 이루어 보겠다는 反民族的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아) 韓·美 離間 및 北韓政權 承認

北韓 共產集團이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 締結 問題를 討議하기 위해 板門店이나 第 3 國에서 双方의 上級代表들이 對坐하자고 提議한 것은 韓美間을 離間하고 美國이 「北韓政權」을 實質적으로 承

認하는 效果를 거두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나라와 美國은 第2次 世界大戰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善隣·友邦關係를 맺어 왔다.

美國은 日本 帝國主義의 收奪로 거의 廢墟가 되어 버린 우리 韓國의 戰後復旧와 經濟復興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經濟援助를 해주었으며, 韓國을 赤化하려는 共產勢力의 陰謀와 맞서 우리의 獨立과 統一을 위해서 積均的인 努力을 傾注하였다.

특히 6.25 動亂이 일어나자 美國은 共產主義의 侵略을 阻止하고 응징하려는 「유엔」軍의 一員으로 勇躍 參戰하여 우리의 自由와 平和를 守護하는 데 앞장서 주었다. 이 때를 契機로 우리 나라와 美國은 血盟之交를 맺게 되었으며, 이 血盟之交는 越南戰線에서 더욱 튼튼하게 다져진 것이다.

한편, 國土가 分斷된 채로 우리가 願치 않았던 休戰이 成立됨에 따라, 우리 나라와 美國은 앞으로 언제 再發할지도 모르는 共產勢力의 侵略에 미리 對備하는 共同防衛態勢를 다져 나가기 위하여 1953年 韓美防衛條約을 맺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美國은 傳統的으로 不可分의 紐帶關係를 맺어 왔으며, 美國은 1948年 12月12日 第3次「유엔」總會에서 決議한 「大韓民國이 韓半島內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누구보다도 積極 支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多角的으로 努力하고, 우리와의 紐帶를 더욱 強化해 나왔던 것이다.

갈수록 철통같이 다져지는 이와 같은 韓美紐帶는 再侵의 機會만을

노리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에게는 더 없이 큰 障礙가 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北韓은 그들이 노리는 이른바 決定的인 時期를 보다 빨리, 보다 有利하게 造成하기 위해서는 韓美間을 離間하고 紐帶를 弱化시키는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를 위한 한 計略으로서 이번에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것이다.

만약 美國이 北韓의 提議를 받아 들여 우리를 제쳐 놓고 韓半島 問題에 관해 어떠한 恫정을 하게 되면 우리와 美國과는 必然的으로 意見이 對立될 것인데, 北韓은 바로 이러한 韓美間의 意見 對立으로 韓美間의 紐帶가 弱化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問題의 討議를 위해 美國代表들이 北韓代表와 자리를 같이 한다면, 設令 平和協定 締結은 成功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契機가 되어 間接적으로나마 美國의 「北韓正權의 事實上的 承認」이라는 效果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음흉한 속셈인 것이다.

① 美國의 對韓援助를 中斷시키고 韓國을 孤立化 底意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의 또 다른 속셈은 美國에 대해 이와 같은 偽裝平和攻勢를 展開하여 北韓이 平和 愛護 集團인 것처럼 世界 輿論을 誤導함으로써 美國의 對韓援助를 中斷시키는 作用을 加하게 하는 한편 韓國을 孤立化시키려는 것이다.

昨年 11月 21日 7.4 南北共同声明 精神의 再確認, 南北對話의 繼續과 南北間의 多方面的 交流의 促求 등을 骨字로 하는 合意声明이 「유엔」 政治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採択되자, 全世界의 輿論은 一齊히 「韓國側 立場이 100% 反映된 것으로서 韓國外交의 빛나는 勝利」라고 우리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世界 모든 나라들이 對話와 交流와 協調를 통한 南北韓의 自主的이며 平和的인 統一努力을 真正으로 바라고 있다는 証憑이며, 따라서 全世界는 그러한 立場과 努力을 積極的으로 傾注하고 있는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國際的 地位는 날로 向上되어 가고 있고, 反 對로 北韓의 地位는 날로 떨어져 가는 데다가, 雪上加霜格으로 中 小紛爭이 점점 加熱化되어 실망을 잃게 된 北韓은 焦燥와 不安과 挫折感을 느낀 나머지 對美 平和協定 提議로 韓國을 孤立化시켜 보자고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하여 韓國을 國際社會에서 孤立시키는 한편, 韓國과 가장 긴밀한 紐帶關係에 있는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 締結 提議라는 偽裝 平和攻勢를 展開하여 美國輿論을 「反韓國的」으로 誘導함으로써 對韓 援助를 中斷시켜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4. 平和協定 提議에 對한 國內外 反應

가. 韓美政府側의 反應

北韓이 美國에 對해 「유엔」軍인 駐韓美軍의 撤수를 內容으로 한 소위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하자, 美國은 그 提議의 속셈과 不當性을 看破하고 「韓國問題는 南北韓끼리 解決할 問題」라는 立場을 밝힘으로써 冷談한 反應을 보였다.

美國 國務省 「존. 킹」代辯人은 「駐韓美軍은 ^北美國政府의 要請으로 韓美防衛條約의 規定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다」고 말하고, 「美國政府는 南北韓間의 緊張을 완화시키는 진지한 제안에는 항상 關心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朴大統領의 南北間 相互不可侵 協定과 南北對話를 계속하도록 촉구한 지난해의 第28次 「유엔」총회의 결의등을 注視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킹」代辯人은 1年前에도 北韓은 美國 議會에 對해 그와 비슷한 提案을 한 적은 있지만 별다른 成果가 없었다는 事實을 상기시킴으로써 北韓의 提案을 진지한 提議로는 보지 않는다는 美國 國務省의 立場을 밝혔다.

한편, 大韓民國 政府代辯人 尹曹榮 文化公報部長官은 北韓의 提議에 對해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했다.

「지금까지 休戰協定이나 7.4 南北共同聲明조차 지키지 않고 韓半

島의 긴장을 조성해 온 北韓 共產集團이 영동하게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것은, 한 마디로 駐韓「유엔」軍인 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國의 防衛態勢를 弱화시켜 武力赤化統一을 이룩하려는 野慾을 다시 한번 노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74년도 예산에 國防費를 증액하고 休戰線 일대에 軍事力을 增強하면서 武力挑發 行爲를 더욱 격화시키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이유 없이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狀態에 몰아 넣은 北韓 共產集團이 平和協定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침략 의도를 은폐하려는 상투적인 위장 선전 술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진정 韓半島의 平和를 願한다면 現 休戰協定을 성실히 지키고, 7.4 南北共同聲明과 또한 지난해 第28次 「유엔」 總會에서 滿場一致로 채택한 南北對話 促求 決議에 따라 南北對話에 성의를 보이는 동시에 우리가 제의한 南北間 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나. 国内言論의 反應

北韓이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한 사실이 報道되자 国内言論과 一般 國民輿論은 「北韓이 侵略성을 은폐하려는 상투적인 偽裝平和攻勢로 韓國의 國際的 地位 格下와 韓美 離間을 劃策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이 提議는 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國의 防衛態勢를 弱화시켜 武力赤化統一을 이룩하려는 野慾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國內 主要新聞들은 社說을 통하여 北韓이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데 대해 그들의 속셈을 파헤치고, 그 不當性을 要約 다음과 같이 論駁하였다.

① 京鄉新聞은 「北傀의 이와 같은 提議는 對外戰略의 轉換을 意味한다. 北傀가 그 對外戰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지만, 특히 이번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위한 協南 제의를 통해 北傀는 새로운 政治的 挑戰을 감행하고 있음을 본다」고 지적하고, 그 底意를 「美國內 輿論의 分裂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 會談에서 韓國을 除外시키려는 것은, 韓美 兩國間의 離間과 韓國의 國際的 地位 弱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論評하였다.

② 東亞日報은 「北傀의 이번 提議는 그 동안 積極적인 門戶開放外交政策을 천명한 우리의 6.23 宣言과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指向하는 南北韓의 不可侵協定 提議가 國際社會에서 크게 公명을 받게 되자 그 效果를 減退시키기 위한 北傀 나름대로의 하나의 代案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軍事的 觀點에서 『駐韓 「유엔」軍과 美軍의 철수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國의 防衛態勢를 弱化시켜 그들의 目標인 武力赤化統一의 機會를 노리려는 策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論評하였다.

③ 서울新聞은 「우리는 事勢가 이에 이름에 그들의 이렇듯 方向 感覺마저 잃은 듯한 최후 발악적인 위장평화공세에 새삼 놀라

기보다는 또 다시 노정된 時代錯誤的이며 自己矛盾的인 無識의 極致를 오히려 가련하게 생각할 따름이다.

이번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는 첫째 작년 11월 21日 제 28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평화적인 南北對話의 促求」를 내용으로 한 「한국문제의 종결선언」을 전혀 무시한 국제사회 成員으로서의 몰지각한 소치인 동시에, 둘째 마치 獨創的인 사상인양 荒唐 내세워 오던 이른바 「主体性」 운운의 假面을 「7.4 共同声明」의 主体가 누구인지 根本부터 망각함으로써 종내 스스로를 벗겨 버리고만 결과가 되었다」고 論評하였다.

④ 新暉日報은 「北傀는 한 마디로 그들의 表裏不同한 이른바 平和協定의 馬脚을 赤裸裸하게 드러내 놓고야 말았다.

그들이 7.4 共同声明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이 셋 빨간 거짓말이었음을 거듭 분명히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平和協定이라는 것이 韓國을 外面한 채 머리 너머로 美國을 相對로 제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可笑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論評했다.

⑤ 朝鮮日報은 「종래에는 韓國政府를 상대로 平和協定을 체결 하자고 平和宣傳을 해 온 金日成이 이제 相對者를 바꾼 데는 몇 개의 計策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格下시키는 반면, 스스로의 地位를 높여 보자는 것이다.

둘째는, 韓美 양국간에 不和의 씨기를 박아 보자는 것이다.

세째는, 美國政府가 거부할 경우에는 世界的인 反美宣傳을 더욱 強化해 보자는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美 國務省이 韓國의 參加 없이는 어떠한 平和協商도 할 수 없다는 立場을 즉각 표명함으로써 그러한 計策은 벌써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⑥ 中央日報은 『北傀의 이같은 제의는 얼핏 「平和」를 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精査해 보면 저간의 北傀 행동 및 종전의 主張과는 전혀 전후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라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또 可笑로운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른바 「主体意識」을 강조하고 韓國問題에 대한 內政干涉를 말라고 辱說해 온 北傀가 그들의 敵國 美國에 대하여 韓國을 제외하고 分斷 韓國 문제 해결을 위한 協商을 갖자고 제의한 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指摘하였다.

⑦ 한국일보도 社說에서 「北傀의 이번 提議는 지난 3月 4日 金日成이 演說를 통해 不可侵協定案을 拒否했고, 그들의 平和協定案을 고집하면서 對南 內政干涉 試圖를 浮刻시켰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陳腐한 敷衍에 不過하며, 아무런 새 內容이 없고 고작해야 海外心理戰에의 援用을 짐작케 할 따름」이라고 論評했다.

다. 海外言論의 反應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가 報道되자 世界 各國에서는, 「이것은 事實上 南北對話의 中斷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解釋하고, 「韓國을 無視하고 있는 點으로 실현 可能性이 없는 提案」이라고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① 日本의 主要 日刊紙들은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締結 提議에 대해 報道하면서,

「이번 北韓의 對美 直接交涉 提案은 北韓側이 南北對話의 事實上的 포기를 決斷했음을 뜻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報道하고, 北韓의 提案을 批判적인 姿勢에서 取扱하고 있다.

즉, 「朝日新聞」은 「이번 提案의 背景에는 美·中·蘇 3 國間에 韓半島의 安定에 關한 合意가 成立되어, 中共 또는 蘇聯의 壓力으로 北韓이 美國에 대해 交涉을 계의했다는 觀측과, 또 한가지 北韓의 國內事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觀측이 있다」고 報道하면서, 「그러나 北韓의 對美 提案은 從來의 公式적인 「톤」에 머물고 있으며, 그 점에서 이번 提案은 北韓의 一方的인 提案에 지나지 않는다는 觀측도 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間의 對話는 앞으로 必然的으로 더 한층 冷却되고 緊張을 내포한 채 現狀維持가 지속될 것 같다」고 論評하였다.

또한, 「每日新聞」은 「이 提案에 美國이 即刻적으로 應할 展望은 없다」고 보도하고, 「南北對話 및 次期 「유엔」 총회 등에 重大한 一石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解說을 붙여

報道하면서, 「休戰線全線을 韓國軍이 防禦하고 있는 現상태로 미루어 韓國 머리 너머로 平和協定을 提案하는 것은 現實性이 없다」고 서울 駐在 「후루노」 特派員의 記事를 引用 報道했다.

한편, 東京新聞은 解説記事에서 「이번 北韓의 對美 直接交涉」 提案은 北韓側이 南北對話의 事實上의 포기를 결단했음을 뜻한 것인 지도 모른다」고 報道하고 있다.

② 한편, 美國의 「뉴욕 타임즈」 紙는 「이는 美軍 撤收를 되풀이 主張해 온 끝에 나온 提議」라고 지적하고, 「美 國務省은 韓國問題는 韓國人들 스스로 解決해야 한다는 從前 立場을 再確認하고, 北韓 提議는 1年前 北韓으로부터 나왔던 一連의 提議의 再湯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論評하고 있으며, 『北韓의 提案은 「유엔」 軍인 美軍의 撤收를 促進시킴으로써 大韓民國의 防衛態勢를 弱화시켜 武力赤化統一을 이루어 보려는 北韓 共產集團의 兇計를 다시 한번 露呈시킨 것』이라는 尹胄榮 文公部長官의 論評을 서울로부터 引用 報道하고 있다.

또한, 「볼티모어·선」 紙는 「武力使用 拋棄·內政干涉 中止·休戰協定 尊重을 內容으로 한 不可侵協定을 締結하자는 韓國側 提案을 反擊하기 위한 一連의 北韓 策動의 最新版에 지나지 않는다」는 「홍콩」 發 「로이타」 記事를 그대로 引用 報道하고 있다.

또, 美國의 「워싱턴 포스트」 紙의 「돈·오버도퍼」 記者는 「4 個 項目의 北韓 提案은 실지 문제상의 어려움, 宜伝性 등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하고, 「美國이 이 提案을 받아 들인다면, 비록 協議의 발판으로나마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不信任을 뜻하게 되어 受諾할 것 같지 않다」고 報道하고, 「平壤 提案은 또한 緊張이 高潮되고 있는 韓國情勢에 새로운 策動의 길을 트는 것이기도 하다」고 論評하였다.

③ 또한, 「아르헨티나」의 「라·나송」紙는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를 報道하면서, 『美·北韓關係는 1968年 「푸에블로」호가 北韓에 의해 拉致되었을 때 極度로 惡化되었다』고 報道하고, 「韓國의 朴大統領은 지난 年初 不可侵協定을 提議한 바 있으나 北韓은 이를 拒否했다」는 事實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提議가 國內外的으로 冷談한 反應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다.

첫째, 작년 11월 21일 제 28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自主적인 南北對話의 促求」를 내용으로 한 「韓國問題 討議 終結宣言」을 전혀 무시한 處事라는 점

둘째, 「7·4 共同聲明」의 主体가 누구인지 根本부터 망각한 行動이라는 점

셋째, 그들의 平和協定提議의 속셈이 「유엔」軍인 駐韓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國의 防衛態勢를 弱화시키려는 데 있음이 엿보인다는 점

네째, 우리의 不可侵協定 提議가 國際社會에서 크게 공명을 받자,
그 効果를 減退시키려는 代案의 하나를 나온 것이라는 점

다섯째, 美國政府에서 拒否할 경우에 世界的인 反美宣傳의 口實로
삼으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는 점 등이다.

5 . 結 語

지금까지 休戰協定이나 7.4 共同聲明조차도 지키지 않고 韓半島의 緊張을 造成해 왔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가장 現實的인 方策인 우리의 不可侵協定 提議마저도 拒否해 온 北韓 共產集團이 엉뚱하게 美國에 대해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것은 한 마디로 駐韓「유엔」軍의 撤收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國의 防衛態勢를 弱화시켜 武力赤化統一에 有利한 條件을 造成하려는 野慾을 다시 한번 露呈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끊임 없는 策動에 대해 우리는 더욱 警覺心を 높이고 總力安保態勢를 強化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北韓의 武力赤化統一이라는 基本戰略에는 變함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고,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直視하면서 그들의 偽裝平和攻勢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北韓의 이번 提議는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가장 現實的인 方策인 우리의 不可侵協定 提議를 拒否하면서 그들이 끈질기게 主張해 온 우리에게 대한 平和協定案을 彩色한 것에 不過하며 아무런 새 內容도 아니다. 특히 우리 國民이 激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北韓 共產集團이 韓半島 問題 解決에 있어서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인 大韓民國을 度外視하고 第3國과의 흥정을 劃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北韓의 이러한 提議에는

多目的的인 底意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韓國을 協商對象에서 除外함으로써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格下시키는 한편, 韓美間 離間을 劃策하려는 속셈 외에도 今秋「유엔」 總회에 對備해서 보다 有利한 高地를 占領해 보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北韓 共產集團의 底意를 直視하고 勝共理念과 有備無患의 精神으로 安保意識을 더욱 가다듬어 總力安保態勢를 더 한층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北韓 共產集團의 基本戰略은 어디까지나 武力이나 暴力에 의한 赤化統一에 있다. 이것은 6.25南侵 當時나 對美 平和協定을 提議한 오늘에 있어서나 變함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74年度 予算에서 國防費를 大幅 增額하고 休戰線 一帶에 軍事力을 增強하면서 武力挑發을 더욱 激化시켜 南北關係를 對話以前의 狀態로 後退시키려는 暴挙를 서슴 없이 恣行하고 있다.

우리는 北韓 共產集團의 이러한 戰略 戰術을 鉛意 注視하면서 周辺情勢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北韓의 策略을 事前에 粉碎할 수 있는 總力安保態勢를 더욱 強化해 나가야 하겠다.

最近 北韓은 白翎島·大靑島 등 우리 나라의 西海 5島水域에 對해 不當한 領海權을 主張하면서, 그곳을 往來하는 우리의 民間船舶들을 위협하는 挑發行爲를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公海上에서 平和的으로 漁撈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 漁船을 擊沈, 擄北한 蠻行은 아직도 우리의 記憶에 새롭다.

機會 있을 때마다 「南韓革命」 完遂를 다짐하고, 戰鬪力強化를 指示하면서, 「南韓에 있는 進步的 勢力과 力量을 集結하여 革命課業을 完遂하자」 고 煽動하고 있는 金日成이 그를 은폐하기 위한 偽裝平和攻勢의 하나로 이번에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提議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北韓 共產集團의 對南挑發은 더욱 激化될 可能性이 짙다.

따라서 우리 國民들은 北韓 共產集團의 挑發과 策動에 對備하는 總力安保態勢를 더욱 굳건히 強化해야 할 것이다.

南北對話를 効率的으로 뒷받침하고, 北韓側의 偽裝平和攻勢의 策略을 粉碎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려면 우리는 總力安保態勢와 總和維新體制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한다.

激變하는 國際情勢와 世界的인 經濟波動의 激浪, 그리고 北韓 共產集團의 變함 없는 挑發과 策略에 直面하여 그 모든 挑戰과 試鍊을 슬기롭게 克服할 수 있는 態勢가 곧 總和維新體制이다.

이러한 어려운 時点에서 國家의 安定과 民族繁榮을 기약하고, 그 바탕 위에서 祖國의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強化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國民總和에 의한 國力の 培養과 組織化에 힘써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10月維新은 우리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自主的인 平和統一을 期約하기 위한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그 強化를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國民들은 内外의 여러 가지 挑戰과 위협이 增大

해 가고 있는 오늘의 現實을 直視하고, 民族活路를 開拓하려는 維新
理想을 俱現하기 위해 總和的인 團結과 国力의 組織化에 더욱 努
力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維新體制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기 위해 온 國
민이 다 같이 一糸不乱하게 團結하고, 維新課業에 能動的으로 参与
하는 總和的인 努力을 傾注해야 하며, 한편 政府가 펴 나가는 갖
가지 施策을 國民總和의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國民이 時局觀을 一致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國論統一을
이룩할 때 비로소 維新總和體制는 強化되며, 우리의 安定과 繁榮은
勿論, 祖國統一과 民族中興은 期約될 것이다.